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배포일시	2025.11.12.(수) 오전 07:00		
담당부서	(재)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	책임자	부장	이시종	032-290-2045
		담당자	대리	허아영	032-290-2049

“윌라·웅진씽크빅 등과 함께 새로운 문화 협업 모델 제시” 국립세계문자박물관, 국내 출판사와 손잡고 독서문화 확장에 나서

- 기획특별전 《천천히 서둘러라: 알도 마누치오,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》 연계
- 윌라, 웅진씽크빅 주요 출판사와 협업·제휴
- 전시에는 민음사, 시공사, 동아시아 등 국내 23개 출판사 참여
- 오디오 가이드 제작, 열린 독서공간 마련, 북큐레이션 공간 조성 등

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윌라,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출판사와 독립서점과 함께 문자의 가치 확산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협업에 나선다.

이번 협업은 지난 10월 28일 개막한 기획특별전 《천천히 서둘러라: 알도 마누치오,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》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, 오디오가이드 제작, 열린 독서공간 마련, 북큐레이션 공간 조성 등 전시와 연계된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.

윌라와 함께 ‘보는’ 전시를 ‘듣는’ 경험으로 확장

박물관은 통합 독서 플랫폼 ‘윌라’와 협력해 전시 오디오가이드를 제작했다. 관람객은 전시장 내 QR코드를 통해 윌라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, 전시의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총 15개 섹션의 해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. 이번 협력은 전시 해설의 접근성을 높이고,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 전시와 독서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웅진씽크빅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기는 체험형 독서공간

또한 오는 12월에는 출판·교육 기업 웅진씽크빅과 협력해 2층 로비에 ‘열린 독서공간’을, 유아학습실에는 ‘유아 도서 큐레이션’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. ‘열린

독서공간'에는 한글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한글 교구재와 생성형 AI, A R 기술이 접목된 독서 솔루션 체험존이 운영되어, 국내외 관람객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. '유아학습실'에는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도서와 체험형 교구재가 비치되어 오감을 통한 입체적인 독서를 만나볼 수 있다.

출판사와 함께 만든 북큐레이션 공간

이번 기획특별전에서는 국내 23개 출판사가 참여한 북큐레이션 공간이 구성됐다.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정연 학예사는 “500년 전 알도 마누치오가 소수에서 다수에게로 책을 전달하며, 취미로서의 독서문화로 나아갔다면, 오늘날의 독서문화는 어떤 모습일까?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, 출판사 각자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큐레이션 방식을 택했다”고 전했다.

대형 출판사부터 1인 출판사, 독립서점까지 참여한 이 공간은 전시의 마지막 지점에서 '오늘의 독서와 출판'을 보여주는 현대적 독서의 장으로 조성했다. 관람객은 책을 읽고 감상평을 남기거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독서를 즐길 수 있다.

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계자는 “이번 협업은 기획특별전을 계기로 다양한 기관과 출판사들이 함께 책의 의미를 새롭게 나누는 기회”라며 “관람객이 문자와 출판 문화를 보다 폭넓게 경험하고, 책이 가진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이미지 자료 1부. 끝.

□ 이미지 자료



[사진1] 월라 오디오가이드 안내 이미지



[사진2] 전시실 내 오디오가이드 QR코드



[사진3] 월라 오디오북 체험존



[사진4] 월라 전자책 체험존



[사진5] 기획특별전 북큐레이션 공간



[사진6] 북큐레이션(민음사)
(원) 출판사 소개 / (오) 큐레이션 내용이 적힌 책